

세기말에 나타난 버슬 스타일의 재등장 원인에 관한 연구

-17~20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김 은 하 · 정 흥 숙

중앙대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Re-occurred Reasons of the Bustle Style in the Turn of a Century

-Centering around France from the 17th to the 20th century-

Eun-Ha Kim · Heungsook G. Chung Ph.D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2001. 11. 21 토)

ABSTRACT

The so-called 'Bustle' which was a support put on waist to heave the side the buttocks means the grandiloquent style to express to ideal body.

Bustle style, one of the outstanding and remarkable fashion trends in the late 20th century, has significant meaning in fashion history.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style has the longest history, but also it has been periodically repeated every end of a century from the 17th to the 20th century.

To analyze to cause the Bustle style was shown, I studied first the sign of forthcoming activity of the Bustle style, the change of the Bustle style shown in the times at the end of century and feature of the Bustle style.

Based on the previous reasons of appearance of the Bustle style in the history, there are two similarities.

First, reaction led to an occurrence of the reactionary tendency, the Bustle style as they were eager for the past because of a feeling of uneasiness about a coming century.

Second, the principle of retrogression led to an occurrence of the Bustle style craving for new style. This Bustle style which was reaction from being tired of the former fashion appear to expression a desire for new style.

In short, Bustle style was an intermediation between different histories and the basis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new eras, rather than just a part of classicism.

Key Words : the reasons of appearance of the Bustle style, the reactionary tendency, reaction & a desire for new style : 버슬 스타일의 발생 원인, 회고주의 경향, 반작용 &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욕구

I. 서 론

과거에 대한 동경과 향수는 과거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과거의 양식은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영감의 출처로서 복식 디자인에 중요한 영향원이 되고 있다. 20세기 말에 두드러지고 있는 패션의 복고 경향 중, 1990년 대의 복고풍은 로맨틱한 감각으로 이어져 19세기 유럽 의상을 현재의 패션에 접목시키며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의 재현이다.

엉덩이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 버슬 스타일은 17세기 말에 처음 등장하여 18세기 말과 19세기 말에 재등장하였으며 20세기 말에 다시 재현되었다. 이처럼 버슬 스타일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세기말마다 등장한 패션 경향으로서 복식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7~20세기 각 세기별 버슬 스타일의 특성과 시대적 배경을 통해 버슬 스타일의 재등장 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서 복고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들의 창조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국내외 서적, 학위 논문, 정기 간행물, 복식 자료, 국내외 패션잡지 등의 문헌을 통하여 버슬 스타일의 태동 및 각 세기 버슬 스타일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버슬 스타일이 등장한 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 세기별 버슬 스타일의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세기별 버슬 스타일의 발생 원인을 비교, 종합하여 버슬 스타일이 등장하게 된 공통된 원인을 규명하였다.

II.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의 태동 및 변천과정

버슬(bustle)이란 엉덩이 부분을 부풀리기 위해 허리에 착용하던 베텁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버슬 스타일은 1670년경 오버 스커트를 겹어올려서 뒤로 모아 묶어주거나 뒤 허리에 집어넣은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18세기의 파니에(panier)와 19세기의 크리놀린(crinoline)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다시 나타났다. 특히 19세기 말의 버슬 스타일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트레인(train)을 이용하거나 버슬이란 도구를 이용, 엉덩이를 과장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서 버슬 스타일의 절정기를 누렸다. 1990년대에는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역사적인 복식양식을 나름대로 소화해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버슬 스타일이 응용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 17세기말의 버슬 스타일(Bustle style)

17세기 말에 처음 등장한 버슬 스타일은 베텁대를 사용하지 않고 안감이 보여지게 오버 스커트를 뒤로 드레이프시켜 긴 트레인을 만든 만투아(Mantua)에서 발전된 것이었다.¹⁾ 과장되었던 스커트를 감아 올리는 스타일은 앞트임의 스커트를 뒤로 정리해서 마치 허리받이를 당겨 올린 것과 같은 형태로 스커트의 길이가 길어졌으며 길게 끌리는 트레인이 형성되어 1670년대에 유행하였다(Fig. 1).

1680년대에는 앞의 치맛단 끝을 뒤집어 뒤로 당겨서 뒤 중심에서 보이도록 하여 옆이나 뒤에서 볼 때 폭포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Fig. 2). 1690년대에는 오버 스커트의 앞단을 허리의 뒤 중심까지 과감하게 끌어올려 앞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였는데 별 다른 장식 없이도 버슬 스타일을 표현하였다²⁾(Fig. 3, 4). 1680년대에는 Culde Paris라는 베텁대를 고안해 뒤 허리 부분에 대고 그 위에 로브의 스커트를

뭉쳐서 뒷모습을 불룩한 형태로 만들었다. 이 허리 대의 구성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가 없으나 대개 초기에는 간단한 베개 형태의 패드(pad)였으며 그 후로 철사를 엮은 것과 마모(馬毛)로 짜서 만든 것이 나타났다.³⁾

17세기말, 베슬 스타일의 등장은 양손으로 스커트를 일일이 접어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매력적으로 스커트를 정리해 보려는 노력에서 나온 결과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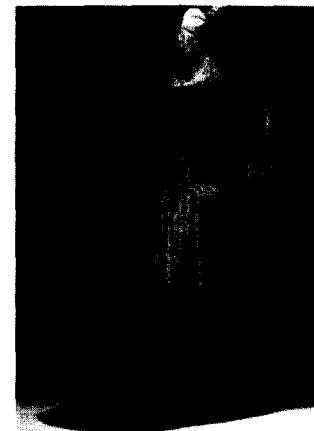
<Fig. 1> in the 1680's Bustle style,
(2000years of Fashion, 1965, p.286.)



<Fig. 2> in the 1680's Bustle style,
(2000years of Fashion, 1965, p.263.)



<Fig. 3> in the 1690's Bustle style,
(패션의 역사②, 1992, p.32.)



<Fig. 4> in the 1690's Bustle style,
(IN STYLE, 1995, p.80)

2. 18세기말의 베슬 스타일(Bustle style)

18세기말에는 그 동안의 과장되었던 의상 스타일에서 일체의 장식적인 것,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파니에(panier)와 스커트가 축소되었고 이것이 후부(後部)의 과장을 가져왔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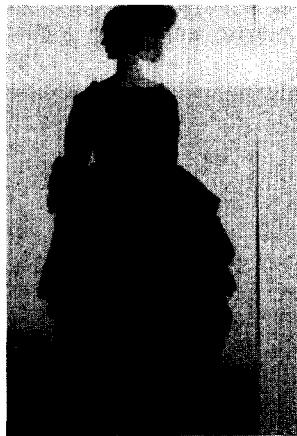
1760년대 후반에서 1770년대에는 오버 스커트의 아랫자락을 코드(code)로 끌어올려 3개의 커다란 퍼프(puff)를 형성한 로브 아 라 폴로네즈(Robe à la polonaise)가 크게 유행되었다(Fig. 5). 이후 Polonaise

의 변형으로 세 개의 퍼프(puff)가 있으나 베름대를 사용하였고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 발목이 보였던 로브 아 라 씨르까시엔느(Robe à la circassienne)가 등장하였다⁶⁾(Fig. 6)。

로브 아 라 까라코(Robe à la caraco)는 시민 계급에서 착용한 실용적인 의상으로 영국 상류 부인들 사이에서 1780년경에 유행하였는데 마치 엉덩이를 부풀린 스커트 위에 재킷을 입은 로브처럼 보였다(Fig. 7). 로브 아 라 레비트(Robe à la lévite)는 뒤페이지 밑에 롤(roll)을 넣거나 특별히 풀을 단단히 먹여 팽팽하게 한 페티코트를 입은 스타일로 스커



<Fig. 5> Robe à la polonoise,
(The Age of Napoleon,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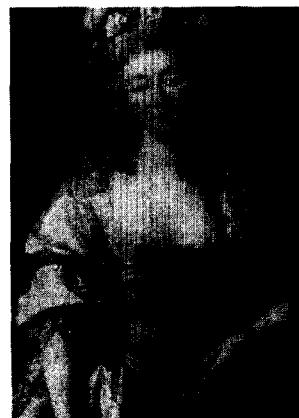


<Fig. 6> Robe à la circacienne,
(Eighteenth-century French Fashion Plates, p.22.)

트가 지면에 닿았고 뒤로 트레인이 끌렸다⁷⁾(Fig. 8).

1778년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말꼬리 끝에 털이 난 모양을 뜻하는 것처럼 허리선에는 주름이 많이 잡혀있는 형태⁸⁾의 로브 아 라 렁글레즈(Robe à la lânglaise)는 로브의 길이가 마루에 닿았으며 특히 뒷부분이 더 길었다(Fig. 9).

1785년 이후에는 베슬 스타일이 과장되어지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인공적인 패드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커트가 뒤로 옮겨져 드레이퍼리짐에 따라 발생된 코르크로 만든 'bum(엉덩이)' 또는 'rump(엉덩이)'라고 불리던 큰 패드는 그 크기가



<Fig. 8> Robe à la lévite,
(서양복식문화사, 정홍숙, p.249.)



<Fig. 7> Robe à la caraco,
(Eighteenth-century French Fashion Plates, p.6.)



<Fig. 9> Robe à la l'anglaise,
(The Age of Napoleon, p.44.)



<Fig. 10> in the 1870's Bustle style,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p.186.)

서서히 작아지면서 1790년대 높아진 뒤 허리선 아래에 작게 고정되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⁹⁾

3. 19세기말의 버슬 스타일(Bustle style)

1860년대 말, 거대하던 크리놀린 스타일이 축소되면서 스커트의 여유분이 뒤쪽으로 모아졌고 이후 훈튼한 버팀대에 의해 하이 버슬(High-Bustle) 형태로 변화되었다. 19세기 버슬 스타일의 초기 형태는 스커트 길이가 발끝 정도였으며 뒤에는 짧은 트레인이 끌리는 실용적이고 점잖았던 형태였으나 버슬이 점점 더 불룩해지고 여러 가지 옷감을 복잡한 태크닉으로 정렬시켰다.¹⁰⁾ 1874년경에는 프린세스 라인(princess line)이 들어간 봄에 꽉 끼는 '퀴래스(cuirass) 바디스'가 등장, 트레인이 아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언더 스커트의 트레인에 부착되었던 더스트 러플(dust ruffle)은 마루에 퍼지면서 스커트의 장식을 돋보이게 하였다.¹¹⁾

1877년에는 긴 트레인이 달린 버슬 스타일이지만 복잡한 장식이 많이 감소된 단순한 실루엣으로 나타났는데 이 실루엣 형태가 과장되면서 스커트 아랫부분의 옷자락 폭이 다리를 휘감을 정도로 좁게 변하였다¹²⁾ (Fig. 10, 11).



<Fig. 11> in the 1870's Bustle style,
(서양복식의 흐름, 1998, p.35.)

1880년대에는 버슬의 크기가 과장되어 1881년경부터 다시 부풀려지기 시작한 스커트는 1884년경에는 가장 많이 돌출되었는데 이것은 강철이나 삼태기로 버팀대를 만들어서 엉덩이를 90도 각도로 돌출한 형태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1884년경의 버슬은 그 크기가 정점에 달하면서 모드의 전형이 되었다. 거의 90도로 돌출되었던 버슬 스타일은 1888년이 되면서 그 크기가 갑자기 약화되면서 허리에서 엉덩이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³⁾ (Fig. 12, 13).



<Fig. 12> in the 1880's Bustle style,
(서양복식의 흐름, 1998, p.36.)



<Fig. 13> in the 1880's Bustle style,
(IN STYLE, 1995.)

이처럼 1880년대에는 버슬 스타일이 과도하게 발달하였음에도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합리적으로 변화되면서 근대 스타일로의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

4. 20세기말의 버슬 스타일(Bustle style)

1990년대 역사주의가 부각되면서 등장한 버슬 스타일은 이전처럼 과도한 버슬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도 엉덩이를 부풀리고 뒤 부분을 강조한 형태를 등장시키기 시작하였다. 특히 버슬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베팀대나 패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속옷과 베팀대에 리본, 레이스, 러플, 플라운스 등으로 장식을 하여 뒤를 강조한 것도 있다.

현대 복식에 나타난 버슬은 조형미가 강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상의 후부의 페플럼을 확대·과장시켜 스커트 형태를 이루면서 엉덩이 부분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건축적인 디자인을 통해 시각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커트 모양의 왜곡을 통하여 과장된 형태를 만들거나 엉덩이의 둥근 형태를 두드러지게 강조한 디자인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¹⁴⁾ 버슬 스타일은 엉덩이를 부풀린 과장된 실루엣뿐 아니라 실루엣을 좌우로도 과장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아워 글래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을 형성하여 관능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20세기말의 뛰어나온 엉덩이와 가슴, 가는 허리를 형성하는 이러한 스타일은 여체의 매력을 더욱 강조하고 성적 자극을 가중시키게 되었다¹⁵⁾(Fig. 14, 15, 16, 17).

뒤를 강조한 버슬 스타일의 최근 경향은 디테일을 조화시켜 만들어 낸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현 시대의 취미와 욕구를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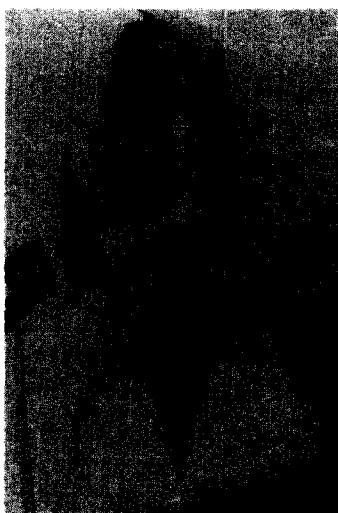
<Fig. 14> in the 1990's Bustle style,
(WWD, 1994 DEC, p.51.)



<Fig. 15> in the 1990's Bustle style,
(Collezioni Book N.11, p.262.)



<Fig. 17> in the 1990's Bustle style,
(Harpers Bazarr, Italia N.193.)



<Fig. 16> in the 1990's Bustle style,
(Harpers Bazarr, Italia N.193.)

III. 17~20세기말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의 발생 원인

1. 17세기말 버슬 스타일의 발생 원인

1) 시대적 분위기에 따른 의식의 변화

17세기말의 프랑스는 경제적 침체가 차츰 일반화되면서 국가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발생된 전쟁과 베르사유 궁전의 공사로 다시 한번 오랜 시간과 많은 재정을 소비하였다. 특히 전쟁은 활동성과 실용적인 의상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17세기말의 재정적 적자와 전쟁, 불안하였던 시대 상황 역시 의복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여자복식에 영향을 주면서 단순화되고 기능적인 버슬 스타일로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2) 과학 발전과 계몽사상의 영향

17세기를 일컬어 '지적 혁명기'라 부르는데 이러한 과학 사상과 학설이 계몽주의 사상을 형성하면서 합리주의와 과학적 사고를 보급시켰으며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악습을 알리면서 개혁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하게 되었다.¹⁶⁾ 이와 같이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거대한 의상 스타일은 날카로운 풍자와 비판을 받았으며 여성들에게도 비기능적인 의상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형성하게 하였다.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의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버슬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등장시켰다.

3) 과장된 의상에 대한 반작용

버슬 스타일이 등장하기 전 여성들의 복식 스타일은 페티코트를 빙쳐서 부피를 늘린 비기능적인 형태로 일부지역에서는 엉덩이가 양옆으로 퍼지는 파니에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간소화된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새로운 실루엣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전 시기보다 좀 더 간소한 형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과거 과장된 스타일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이처럼 17세기 말에 유행된 버슬 스타일은 전 시기의 과상하고 비기능적인 스타일에 대한 싫증과 반작용인 동시에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열망으로 보여진다.

4) 고전주의(Classicism) 영향에 의한 절제 경향

17세기 말의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유럽 예술의 주된 양식이었던 바로크의 지배적 영향력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으며 프랑스의 예술가와 건축가들은 화려한 바로크 대신 절제된 고전주의를 추구하였다.¹⁸⁾ 특히 문예 진흥 정책의 지원을 받은 문학과 예술은 고전, 고대에서 영감을 얻어 절제와 조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희곡작가 몰리에르(Moliere)는 사회를 풍자적으로 폭로하며 비평하기를 좋아하였는데 드레스 장식에 값비싼 보석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를 제안하였으며 화려한 의상에 대하여 혹평하는 등 날카롭고 치밀한 기지로 패션 열광자들이 그들의 과장된 모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였다. 여성들은 더 이상 그들의 스커트를 과장하지 않았고 그 대신 앞이 평평하고 뒷부분을 주름 잡은 새로운 실루엣, 즉 버슬 스타일을 착용하게 되었다.¹⁹⁾

5)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프랑스는 계몽사상을 통해 교양있는 여성들을 배출하였으며 상류층 여성들이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²⁰⁾ 여성들은 살롱을 통해 지적 자양을 흡수하였으며 지성적인 방면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입문자의 역할 외에도 훌륭한 전파자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국가 정신을 형성하게 되었다.²¹⁾ 17세기 말, 여성들은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지적 능력이 향상되었고 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와 함께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허용되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에 신체를 예속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주었던 복식보다 활동적이고 합리적인 복식의 필요성을 감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버슬 스타일이 등장하게 되었다.

2. 18세기말 버슬 스타일(Bustle style) 의 발생 원인

1) 시대적 분위기에 따른 변화 현상

18세기 말, 무능한 왕 Louis 16세와 사치스런 Marie Antoinette의 프랑스 지배로 인해 재정적 위기가 촉진되면서 결국 프랑스는 혁명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 상황은 프랑스 의상에 남성복에 반영되어 코트의 경우 불륨이 줄어들어 아주 빈약하게 보이면서 코트의 앞자락 끝이 무릎 뒤쪽으로 가서 바지가 거의 다 드러나게 되었다.²²⁾ 여성복도 실제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되자 파니에 두블(panier double)의 부풀림 정도가 축소되었고 이것이 버슬 스타일을 형성하게 되었다.²³⁾ 전쟁의 패배와 왕실의 사치로 인한 경제적 곤란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는 복식에도 영향을 주어 의상에 대한 사치를 줄이고 간소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버슬 스타일이 등장하게 되었다.

2) 과장된 의상에 대한 반작용

1770년경까지 유행하였던 양옆이 넓게 퍼지던 거대한 파니에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와 과장된 의상에 대한 반작용을 보이면서 간소화되고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스타일이 관심을 끌기

시작하여 크게 유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시점부터 쇠퇴하여 그와는 반대의 새로운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의상미의 극치라는 로코코 양식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18세기 말에는 파니에로 최대로 부풀렸던 로브아 라 프랑세즈 (Robe à la française)의 스커트의 부풀림이 소극적으로 변하였다. 대신 로브의 스커트를 뒤로 당겨 후부에서 부풀려진 베슬 스타일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유행되었다.²⁴⁾

3) 고전주의(Classicism) 영향에 의한 단순화 경향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형식에 얹매이지 않는 것,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우아함 등 이 귀족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널리 받아들여졌다. 고전적 예술에 대한 관심은 이 시기 품페이(Pompeii)와 헤르쿨라네움(Herculaneum)에 있는 유적의 발굴과 독일의 고고학자 요한 빈켈만(Johann Winckelmann)의 1764년 「고대 예술의 역사」(History of ancient art)와 로버트 아담(Robert Adam)의 스팔라토 디 오클레티안(Spalato Diocletian) 궁에 대한 연구에 의해 움직여졌다.²⁵⁾ 이렇게 18세기 후반에는 고전 예의 흥미가 부활해서 고전적 모티브와 직선에 의한 우아함을 추구하지만 장식적 요소가 많은 루이 16세 양식을 탄생시켰다.²⁶⁾ 혁명 이전기의 복식에서도 고전조의 간소한 아름다움이 로코코 복식과 섞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베슬 스타일은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던 우아하고 화려한 로코코 스타일과 영국에서 시작된 간소한 고전주의가 융합되어 나타난 실루엣의 변화이며 당시 무르익었던 지나친 쾌락과 방종에서 온 하나의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4) 자연 존중 사상에 의한 복식의 간소화 현상

18세기 후반에는 루소(Théodore Rousseau)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자연 감각과 전위적이면서 목가적인 양식이 유행하게 되었다. 1750년 유행한 전원 취미로 복식은 인공적인 것에서 자연스럽고 활동하기 쉬운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는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 감동을 받아 궁중 여인들과 함께 양치는

여인과 젖 짜는 소녀 역을 즐겼는데 이 때 왕비가입은 옷차림은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복식에 도입되어 유행되었다.²⁷⁾

이와 같이 앙투아네트의 기분 전환으로 이루어졌던 전원 생활의 연극은 당시의 패션리더로서 과장되었던 복식을 단순화시키면서 새로운 의상을 유행시켰는데 스커트의 여유분이 뒤로 보내지면서 베슬 스타일이 등장하였다.²⁸⁾

5) 영국의 복장개혁 운동 영향

영국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하면서 자본가 계급의 부인들은 독자적인 사회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는 생활 개선 운동이 포함되었고 귀족들의 부풀린 스커트에 대한 복장 개혁도 이 당시 이루어졌다. 이 복장개혁 운동은 프랑스에도 영향을 주어 간소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²⁹⁾ 또한 프랑스보다 먼저 고전적인 그리스의 매력에 영향을 받은 영국인들은 그리스에서 영감을 얻은 건축가나 장인들의 작품을 의상 디자인에 적용시켰다. 이 의상의 단순미와 절제된 표현은 과이할 정도로 인공적인 것들에 비해 신선함을 주었는데 이러한 흐름을 깨달은 프랑스 역시 영향을 받게 되었다.³⁰⁾

영국 복식의 유행은 전원적 취미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입기 쉽고 활동이 편한 영국 복식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이상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6) 여성의 지위 향상에 따른 인식의 변화

18세기의 귀족 계급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기준을 만들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자신의 신분상의 자유를 이용하였지만 이것은 다른 여성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³¹⁾ 당시 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는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자본가 여인들은 독자적인 사회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귀족들의 심하게 부풀린 스커트가 변하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여성들은 가사와 유아로부터 해방되고 교육이 한층 더 보급되면서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기에 적합한 의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Polonaise 형, Circa-

ssienne 형, Caraco 형, Jacket 등의 의복이었다.³²⁾

3. 19세기말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의 발생 원인

1) 시대적 분위기에 따른 변화

19세기말의 프랑스는 당시 세력을 키워나가던 프러시아의 위협에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1867년 메시코 원정이 무참히 끝나버리면서 다시 한번 약화되었다.³³⁾

186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에는 그 동안 되풀이되었던 공황이 점차 장기화, 만성화 되었는데 특히 1873년에는 서구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대공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이전 시대보다 제국의 번영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패션산업 역시 한동안 마비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복식에 반영되면서 거대하던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을 약화시켰고 이것이 버슬 스타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과장된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 style)에 대한 역기능

Napoleon 3세 시대에는 18세기 귀족적인 분위기를 동경한 나머지 로코코 양식을 다시 부활시켜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 폭을 한없이 늘려 복식 사상 스커트 폭이 가장 넓게 펴졌다.³⁴⁾ 유행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 변화를 겪게 되는데 최적으로 생각되었던 의복 스타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스타일에 대한 싫증이나 다른 스타일에 대한 호기심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 19세기말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소박한 방향으로 택하였다. 이것은 거대하였던 크리놀린 스타일에서 실루엣이 간소화된 버슬 스타일의 유행으로 변화되었다.³⁵⁾

3) 합리주의에 의한 실용성의 추구

19세기 자연 과학 영역에서의 많은 발견들은 과학 만능주의의 기반을 이루하였는데 이러한 과학 만능주의는 합리주의 사상을 낳았으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의 팽배는 복식의 기능성을 부여하는 요인이 되었다.³⁶⁾ 예를 들어 1860년대 말에는 긴 드레스 자락을 들고 걸던 불편함을 코드로 걷어올리게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는데 이것이 폴로네즈 스타일(Polonaise style)을 부활시켰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버슬 스타일을 형성하게 하였다.³⁷⁾

이와 같이 19세기 급속한 과학의 발달은 이성적 사고의 합리주의를 낳았고 이러한 정신은 의상으로 연결되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의상을 생산하였다.

4)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기능적 복식 추구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건은 세계 각국에서 여성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된 캠페인이었다. 이로 인해 여성들도 정부의 공공 기관에 채용되었으며 교육이나 사회 참여기회도 균등하게 되었고 활동적인 운동을 즐기는 등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³⁸⁾

또한 여성들은 보다 활동적인 생활을 시작하는데 1860~1870년에는 승마와 골프, 요팅, 사냥, 자전거와 기타 실외 스포츠 붐이 일어나 스포츠 부문에도 여성의 참가하게 되고 이러한 영향이 의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³⁹⁾ 산업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전체 복식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1870년대 이후에 있어 여성복의 단순화라는 변혁을 가져오면서 버슬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5) 사실주의(Realism)와 자연주의(Naturalism) 영향

19세기 후반에는 그 동안 성행하였던 낭만주의의 신비적 충동을 거부하고 가장 평범한 현실주의를 사랑하며 합리적 과학에 대해 열망하였다. 그 동안 존재하였던 귀족 예술이 종말을 고하면서 새로운 문학 경향인 사실주의가 대두되었다. 사실주의는 1840년경부터 1870~80년까지 펼쳐진 운동으로서 그 시대의 생활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현실 세계를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편견없이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⁴⁰⁾

19세기말의 시대 사조였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인상주의의 성행은 복식에도 영향을 주어 실용성과

기능성을 보완한 자연스럽고 간소한 의상 스타일의 선호로 나타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폴로네즈 스타일을 형성하였고 이것이 버슬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는 확실히 환상적인 아름다움에서 실용성을 추구하는 간편한 형태로의 이행을 의미하고 있으며 19세기 후반을 지배하던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⁴¹⁾

4. 20세기말 버슬 스타일(Bustle style) 의 발생 원인

20세기말의 특징으로서 1980년대에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은 1960년대 말에 두드러졌던 모더니즘(modernism)에 대한 반발로서 탄생된 새로운 양식이었다. 이것은 미리 정해진 어떠한 판단 기준이나 가치 기준을 거부하는 것⁴²⁾으로 기존의 것을 파괴한 새롭고 유희적인 것을 추구, 확산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 복고(Retro) 경향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중의 하나로 패러디(parody)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인류가 경험한 모든 문화적 속성을 모방의 의지로 인식하는데 근거한 것이다.⁴³⁾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추상적 경향에 의해 결여되었던 예술의 상징성을 과거의 역사적 요소를 참조하고 이들을 해체, 과장, 확대, 축소 등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복식에서는 '복고적 경향'으로서 그 새로운 시도를 표현하였다.⁴⁴⁾ 복고풍은 20세기의 몰역 사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된 모더니즘의 반항이라기보다는 고도의 혼란과 방황이며 인위적이고 반항적인 시대 사조에 대하여 안정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이다.⁴⁵⁾ 이러한 과거 스타일은 세기말 불안감에서 벗어나 다가올 21세기를 장식하고자 하는 감성 표현을 풍부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세기말의 복고풍 패션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과거에 대한 동경으로 등장하였는데 그중 하나의 테마인 버슬 스타일을 통해 과거의 낭만을 느끼고 퇴행적인 위로를 얻게 되었다.

2) 유희성의 지향에 의한 과장된 스타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중, 지금까지 상식화되어 있던 패션의 룰을 깨고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형태와 컬러의 대담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스타일을 표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 유희 감각이다. 이와 같이 최근 패션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기성 세대의 고정된 시각으로 볼 때 놀라움과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경향, 즉 '유희적 특성'이 두드러지고 있다.⁴⁶⁾ 현대처럼 다양화, 개성화된 사회에서 디자이너는 자신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위해 유희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유희성'은 웃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존 질서의 위선이나 횡포에 대한 공격이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20세기말에 등장한 버슬 스타일은 기존의 복식미에서 벗어나 후부를 과도하게 과장시킴으로서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켰는데 이것은 현시대를 냉소적이고 유희적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단순하고 기능적인 의상에 대한 반작용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단순미 지향성의 무미 견조한 인간성 외연에 대해 반발하여 나타난 유기적이고 자연 지향적인 것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거나 인간이 배설하고자 하는 욕구를 전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⁷⁾ 다양한 예술 사조와 복식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최근에는 합리성과 실용성에 가치를 두고 단순화, 최소화, 극소화라는 시각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90년대의 주된 패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던함이 주는 차가움, 단단함, 냉정함, 빈틈없는 표현들은 오히려 우리를 숨막하게 하였다. 그 획일성에서 벗어나고자 우리의 감성은 다시금 장식에 몰입, 매료되었으며 사물에 로망이나 꿈, 환상과 비애를 장식으로 담기 시작하였다.⁴⁸⁾ 확대·과장된 복식의 조형 감각과 상상력은 서구복식의 전통 속에 고착화된 복식형의 고정 관념을 타파하여 새롭고 입체적인 형을 유출해 냄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⁴⁹⁾

이와 같이 20세기 말 등장한 베슬 스타일은 20세기를 주도하던 단순하고 합리적인 의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인체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것을 새로운 의복 구성으로 접근시켰다는데 의의를 들 수 있다.

4) 인체를 과장하는 에로티시즘(Eroticism)적 경향

현대에 이르러 에로티시즘은 인간성 회복의 성적 매력 표현으로서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기말로 가는 지금 문화 전반의 지배적인 키워드의 하나는 '신체'다. 이성이라는 가치 기준 아래 억압받아 온 '육체'는 몇 년 전부터 해방의 욕구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면서 많은 예술가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왔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인체를 다른 각도에서 파악하고 이것을 과장, 확대함으로서 새로운 복식미를 만들어내었다. 엉덩이 부분에 대한 확대와 과장은 가는 허리와 대조되어 풍만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크기의 팽창은 곧 성적 매력의 효과를 수반, 에로시즘을 완성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⁵⁰⁾

베슬 스타일은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며 의복 구성 방식에 있어서 한 단계 발전되고 의도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체의 성(性)적 부위를 강조함으로서 자신의 매력과 심리적 과시를 드러내어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세기말에 나타난 베슬 스타일(Bustle style) 발생 원인의 공통적인 요인

1. 회고주의 경향

한 시대의 특정한 스타일은 전 시대의 스타일에 당 시대의 시대적 특성이 부가되어 형성된다.

먼저 17세기에는 바로크 양식의 화려함에서 벗어나 절제된 고전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고대인들을 모방하여 질서와 정확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의상에도 영향을 주면서 과장되

었던 의상을 간소화시키면서 베슬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18세기 말 역시 이전보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받아들이면서 고전적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고전주의에 대한 동경과 애호가 의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로코코의 화려함이 고전 양식과 혼합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패션인 베슬 스타일을 형성하게 되었다. 19세기에는 당시 새로운 패션 리더였던 프레드릭 워스(Charlse Frédéric Worth)가 크리놀린에 삶증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로크 시대의 복식을 재현하면서 베슬 스타일이 다시 나타났다.⁵¹⁾

20세기 말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복고의 바람을 강하게 일으켰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와 과거에 대한 동경이 복고풍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베슬 스타일은 그 중 하나의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베슬 스타일은 과거 복식의 모방 행위가 독창적으로 발전된 복식으로서 회고주의 경향에 따른 복고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 역행의 원칙 -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

의복은 항상 우리를 동반하는 것으로 의복에 대한 삶증은 다른 것보다 빨리 나타난다. 새로운 스타일이 아무리 아름답거나 처음에 아무리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매력은 새로움이 점점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되었다.⁵²⁾

17세기 바로크 전성기의 의상 스타일은 페티코트를 받쳐서 부피를 늘린 비기능적인 형태가 유행하였지만 17세기 말에는 단순하고 활동적인 베슬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18세기 로코코 시대에는 로브 아라 프랑세즈(Robe à la française)가 최고의 의상으로서 우아하고 화려함을 자랑하였으나 18세기 후반에는 간소화된 폴로네즈 형이 나타났고 이것이 여러 가지 베슬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19세기 말에도 복식사상 스커트가 최대로 부풀려졌던 크리놀린이 약화되면서 베슬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20세기 말에는 앞의 세기들과는 반대되는 경향에서 베슬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합리성과 실

용성에 가치를 두고 장식을 제거한 최소화된 패션에 대한 반발로서 복식을 확장, 과장시킨 버슬 스타일을 등장시켰는데 이는 그 동안 유행하던 단순한 복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버슬 스타일의 등장은 전 시기의 유행 스타일에 대한 싫증에서 유발된 반작용이며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 결론 및 제안

20세기말에 이르러 두드러지고 있는 복고 패션 가운데 엉덩이를 강조하는 버슬 스타일은 17~20세기까지 약 1세기를 주기로 해서 가장 오랜 기간동안 세기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패션 스타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버슬이란 엉덩이 부분을 부풀리기 위해 허리에 좌용하던 베팀대를 의미하나 베팀대 없이도 스커트를 뒤에서 잡아매거나 장식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부풀렸으며 긴 트레인으로 후부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버슬 스타일을 형성시켰다.

각 시기별 버슬 스타일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17세기말에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른 의식의 변화, 과학 발전과 계몽 사상의 영향, 과장된 의상에 대한 싫증 현상, 고전주의 영향에 의한 절제 경향,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의해 버슬 스타일이 등장하게 되었다. 18세기말에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른 변화 현상, 과장된 의상에 대한 반작용, 고전주의 영향에 의한 단순화 경향, 자연 존중 사상에 의한 복식의 간소화 현상, 영국 복장 개혁 운동의 영향, 여성의 지위 향상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었다. 19세기말 버슬 스타일의 발생 원인으로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른 변화, 과장된 크리놀린 스타일에 대한 역기능, 합리주의에 의한 실용성의 추구,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기능적 복식 추구,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영향에 의해 버슬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20세기말에는 복고 경향, 유희성의 지향에 의한 과장된 스타일의 추구, 단순하고 기능적인 의상에 대한 반작용, 인체를 과장하는 에로티시즘적 경향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지배적인 영향에 의해 버슬 스타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버슬 스타일의 발생 원인을 살펴본 결과, 2가지의 공통적인 발생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새로운 세기에 대한 불안감이 문명의 원천지에 대한 의문과 그리움을 품으면서 발생된 고전에 대한 열망과 과거로의 회귀를 고대하는 회고주의 경향이 복고 패션인 버슬 스타일을 재현시켰다.

둘째,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변화의 욕구에 의해 발생된 버슬 스타일은 전(前) 시기 유행한 스타일에 대한 싫증에서 유발된 반작용이자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버슬 스타일의 반복적 등장은 단순한 모방으로서의 복고 경향이 아닌 역사의 계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고리이자 새로운 시대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세기말에 나타나는 동양 복식의 특성과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해봄으로서 동·서양의 세기말적 의복 특성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시켜 복식에 대한 시각을 확대하였으면 한다.

참고문헌

- 1) Joan Nun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The Herbert Press, 1980, p.68.
- 2)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 New York : Happer Press, 1980, p.368.
- 3) 이정옥, 서양 복식사, 학문사, 1981, p.236.
- 4) 김창준, 패션의 역사②, 주식회사 라미라, 1992, p.31.
- 5) 김경옥, 서양복식사, 양서각, 1996, pp.259-261.
- 6) 조옥례, 18세기 후기 프랑스 여자복식의 고찰, 복식, 10(1), 1986, p.99.
- 7) 조옥례, 루이 16세 시대의 여자의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5, p.57.
- 8) François Boucher, *2000years of Fashion*,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1987, p.291.
- 9) Joan Nunn, *op. cit.*, p.86.
- 10) 김창준, *op. cit.*, p.123.
- 11) Douglas A. Russell, *Costume History and Styl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1983, p.378.
- 12) 김경옥, *op. cit.*, p.195.
- 13)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경춘사, 1994, p.133.
- 14) 김문경, 버슬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

- 술대학원 석사청구논문, 1993, p.71.
- 15) 백은미, 20세기 전반기 서양여성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청구논문, 1994, p.41.
 - 16) Donald Kagan · Steven Ozment · Frank M. Turner, *The Western Heritage 1300-1815*, Macmillian Publishing Co., Inc. New York, p.622.
 - 17) John Wiley · Sons INC, *History of Fashion*, 1970, p.217.
 - 18) E.M. 번즈 · R. 러너 · S. 미첨, 손세호譯, 서양 문명의 역사III, 소나무, 1997, p.788.
 - 19) John Wiley · Sons INC, *op. cit.*, pp.214-215.
 - 20) 水田珠枝, 김희은譯, 여성 해방 사상의 흐름, 백산서당, 1983, pp.34-35.
 - 21) G. 트윅, 이재형 외譯, 세계 여성사(2), 문예 출판사, 1995, pp.19-21.
 - 22)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6, p.224.
 - 23)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97, p.255.
 - 24) 김현숙, 로코코 시대 여성 복식에 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청구논문, 1980, p.13.
 - 25) Blanche Payne, *op. cit.*, p.387.
 - 26) 이영환, 서양미술사, 박영사, 1981, p.292.
 - 27) 조옥례, 루이 16세 시대의 의복에 관한 연구, *op. cit.*, p.12.
 - 28) Joan Nunn, *op. cit.*, p.76.
 - 29) 이정남, 19세기 여자복식을 중심으로 한 베슬스타일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청구논문, 1988, p.6.
 - 30) Blanche Payne, *op. cit.*, pp.438-439.
 - 31) 하이더 분더, 김정희譯, 유럽 근대 여성사, 신원 문화사, 1995, p.297.
 - 32) 丹野 郁 · 原田季郎, 김희현譯, 서양복식사, 중앙지능계발연구소, 1982, p.134.
 - 33) 장 카르팡티에 외, 주명철譯, 프랑스인의 역사, 소나무, 1992, pp.288-289.
 - 34)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op. cit.*, pp.314-317.
 - 35) G. 트윅, 이재형譯, *op. cit.*, p.263.
 - 36) 박미래, 19세기 밀렵 프랑스 여성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청구논문, 1986, p.7.
 - 37)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op. cit.*, p.318.
 - 38) 백영자 · 유효순, 서양복식사, 경춘사, 1991, p.319.
 - 39) 김대건, 프랑스 문화와 파리 패션에 관한 연구, 총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청구논문, 1979, pp.31-34.
 - 40) 린다 노클린, 권원순譯, 리얼리즘, 미진사, 1992, p.7.
 - 41)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op. cit.*, pp.332-334.
 - 42) Eric Hobsbawm, 이용우譯, 극단의 역사 - 20세기 역사, 까치 글방, 1997, p.706.
 - 43) Linda Hutcheon, 김상구 · 윤여복譯,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p.55.
 - 44) 허정란,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청구논문, 1997, p.21.
 - 45) 양윤정, 현대 의상에 나타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청구논문, 1994, p.44.
 - 46) 하지수,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호, 1994, p.28.
 - 47) 정지현, 포스터모더니즘에 의한 패션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원 산업대학원 석사청구논문, 1994, p.69.
 - 48) Fashion Today, (주)패션 정보사, 1993(7), p.78.
 - 49) 김경은, 복식에 나타난 확대 · 과장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청구논문, 1996, p.51.
 - 50) 김경은, *Ibid.*, p.32.
 - 51) 박윤정, *op. cit.*, p.38.
 - 52) Elizabeth B. Hurlock, 박길순 · 정현숙譯, 복식의 심리학, 경춘사, 1990, p.52.